



유족의 단식투쟁 함께 합시다!

열사투쟁 단식까지 돌입

한광호 열사가 돌아가신지 166일째다. 양재동 농성을 시작한 지는 105일이 됐고, 열사의 유족인 국석호 동지가 단식투쟁에 돌입한지도 13일이나 됐다. 노조파괴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이 양재동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 결국 유족이 단식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지역에서, 전국에서 함께 단식한다

유족이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볼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30일에는 충북지역에서 동조 단식을 벌이고 9월 3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면서 동조 단식도 함께 진행된다. 비록 하루 뿐이지만 열사투쟁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유성지회와 갑을오토텍지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3팀을 나눠 전국을 누볐다. 노조파괴를 끝장내기 위한 유성투쟁과 갑

을투쟁에 함께 하기를 호소했다. 9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를 조직했고, 양재동 농성과 갑을오토텍 공장 사수 투쟁 연대를 조직했다. 순회투쟁에 나선 도성대 아산지회 부지회장은 “노동자 임금은 아깝게 여기며, 사람 목숨 조이는 올가미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자들이 노조를 암적 존재라고 부르고 있다. 노동자는 유시영, 박효상 같은 범법 자본가들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사회에서 도려내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또다른 희생은 없어야 한다!

단식에 나선 국석호 동지는 단식을 처음해봐서 두렵다면서도 노조파괴로 인해서 또다른 희생자가 나올까봐 더 무섭다고 했다. 자신의 건강 보다 노조파괴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을 더 걱정했다. 유성지회에서 또다른 희생이 있어선 안된다. 단식투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선 연대가 절실하다. 우리의 연대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 김무성 사과 받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콜트-콜텍 노동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발언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작년 9월 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는 사례가 많다고 콜트-콜텍을 직접 언급했다. 이에 콜트-콜텍 공동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 앞에서 300일이 넘도록 사과를 촉구하며 농성해왔다. 서울 남부지법이 공개장소에서 사과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자 공식사과가 이뤄졌다.

공대위는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콜트-콜텍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 이번주 일정 *

■ 열사투쟁 승리! 동조단식, 촛불집회

-일시 : 8/30(화) 10:00 ~
(18:30 촛불집회)
-장소 : 청주 성안길

■ 열사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9/3(토) 15:00
-장소 : 서울 양재동